

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

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
인도·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
cjcho@kiep.go.kr

최윤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
인도·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
yjchoi@kiep.go.kr

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
인도·남아시아팀 연구원
ycsong@snu.ac.kr

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주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.
- 인도는 공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각 주의 경제수준 및 성장속도 등의 차이가 커서 주별 투자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임.
 - 2007년 소득기준 최대 규모의 마하라슈트라와 최소 규모인 시킴의 격차는 무려 254배임.
- 이에 본 연구는 인도 각 주별로 미래 경제성장률 및 경제규모를 추정하고,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.
- 2026년경 인도의 주별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을 추정해보고, 이를 다른 신흥국가들과 비교하여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봄.
- 또한 전망 조건을 달리하였을 경우, 인도 주별 성장률 및 규모, 소득 등의 변화를 추정하고,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함.
-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 장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- II장에서는 경제성장, 특히 성장 격차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정리하고, 주요 요인별로 인도의 주별 성장 및 성장격차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정리함.
- III장에서는 장기성장률 전망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장회계 모형(Growth accounting model)을 사용하여 인도의 주별 장기 성장률을 추정함.
-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추정된 주별 장기성장률을 바탕으로 인도 각 주의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 변화를 다른 신흥국가와 비교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한 · 인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발굴, 제시함.
-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인도의 주별 성장격차를 요인별로 살펴서 그

관련성을 파악하며, 성장회계 모형을 활용하여 인도의 주별 장기성장률을 처음으로 추정한 것에 의의가 있음.

2. 성장격차 요인과 주별 성장패턴

- 성장격차 요인과 실제 인도 주별 성장격차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,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인도 각 주를 ‘고소득 주’, ‘중소득 주’, ‘저소득 주’, 세 그룹으로 분류함.
 - 시간이 지날수록 각 소득 그룹 간 및 그룹 내에서도 소득수준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함.
- 인적자본 부문에서는 인구의 규모보다는 증가율과 교육수준이 주별 경제성장 격차와 비교적 높은 관련성을 보임.
 - 교육수준에서는 문자해독률보다 학교 등록 및 포기율, 상급교육시설 구비 등이 주의 소득수준과 관련성이 있었음.
- 인프라 부문에서는 고소득 및 중소득 그룹에 속하는 주들이 도로, 철도, 전력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음.
 - 고소득 주일수록 도로 총연장이 길었고, 전력발전능력이 1만MW를 초과하는 주들 역시 모두 고소득 주였음. 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합작 인프라 사업이 고소득 주에 집중되어 있음.
- 천연자원 부존량과 주의 소득수준은 큰 관련성이 없었음.
 - 동부 주요 주들은 풍부한 광물 및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저소득 주에 머물러 있었음.

- 정책환경 부문에서는 주정부가 개방적인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투자유치에 앞장서는 주일수록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.
- 주정부의 경제개혁·개방 정책, 특히 경제특구(SEZ) 추진 정도와 주별 소득의 상관관계가 높았음.
 - 타밀나두, 케랄라, 카르나타카, 안드라프라데시, 구자라트 등 소득수준과 성장률이 모두 높은 남서부 주들이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SEZ 설치를 가속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었음.
- 주별 산업구조와 주별 성장의 관련성은 높지 않았음.
- 고소득 주일수록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, 일부 고소득 주의 경우 농업 비중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었음.
- 물적자본(투자와 재정건전성)과 인도 각 주별 경제성장의 관계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음.
- 투자율, 투자신청규모 등으로 측정한 투자와 주별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았음.
- 다만 외국인직접투자(FDI)에 대해서는 고소득 주에 FDI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등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음.
- 또한 재정적자 규모나 공공부채 비중 등 주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주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주별 소득불균형과 성장 간의 관련성에서도 일관된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음.
- 대체로 고소득 주에서 도농 간 소득불균형 정도가 높았지만, 일부 저소득 주에서도 도농 간 소득격차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.
- 성별 불평등은 고소득 주일수록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표 1. 성장격차 요인과 인도 주별 성장과의 관련성

요 인	관련성
투자	- 투자율, 투자신청규모 등과 주별 성장 간의 관계는 미미 - 반면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고소득 주에 집중적으로 유입 - 재정적자 규모나 공공부채 비중 등 소득이 높은 주들의 주정부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
인적자본	- 인구의 규모보다는 증가율이 소득수준과 관련 - 문자해독률보다 학교 등록 및 포기 비율, 상급교육시설 구비 등 교육의 수준이 소득수준과 관련
산업구조	- 고소득 주일수록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중 또는 성장률이 높음 - 일부 고소득 주의 경우, 농업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인프라	- 고소득 및 중소득 그룹에 속하는 주들이 도로 총연장, 전력발전능력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양호 - 고소득 주에 민관합작 인프라 사업이 집중
소득 및 성별불평등	- 고소득 주일수록 도농간 소득격차가 컸지만, 일부 저소득 주에서도 매우 큰 도농간 격차 존재 - 고소득 주의 성별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
경제정책	- 소득수준이 높은 주일수록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치고 지식기반산업이 빠르게 발전 - 경제특구(SEZ) 정책 등이 고소득 주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

주: 1인당 주별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, 중소득, 저소득 주로 구분하여,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각종 지표 등과의 관련성을 정리함.
자료: 필자 작성.

3. 성장회계 모형을 활용한 주별 성장패턴 및 전망

1) 모델 설정 및 데이터

- 성장회계모형(Growth accounting model)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생산요소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고 추계해 봄으로써 인도 주별 미래 성장률을 추정함.
- 성장회계모형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(Cobb-Douglas production function)를 기반으로 하는데, 총생산(GDP, 모형에는 Y 로 표현) 증가율은 자본(capital stock, K 로 표현), 노동(labour, L 로 표현), 기술진보 혹은 총요소생산성(TFP: Total Factor Productivity, A 로 표현)으로 식 (1)과 같이 구성됨.

$$Y = AK^\alpha L^{1-\alpha}, 0 < \alpha < 1 \quad \text{식 (1)}$$

Y : GDP, A : 생산성(기술진보), L : 노동투입, K : 자본투입

-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 GDP 증가율 추계 식은 식 (2)와 같으며 이를 통해 인도의 과거 주별 경제성장률을 자본증가, 노동증가, 총요소생산성 증가로 나누어 그 변화패턴을 살펴보고 자본, 노동, 총요소생산성의 장기 추정을 통해 주별 장기성장률을 추정함.

$$\frac{\dot{Y}_t}{Y_t} = \frac{\dot{A}_t}{A_t} + \alpha \frac{\dot{K}_t}{K_t} + (1-\alpha) \frac{\dot{L}_t}{L_t} \quad \text{식 (2)}$$

($\frac{\dot{Y}}{Y}$: GDP 증가율, $\frac{\dot{A}}{A}$: 생산성 증가율, $\frac{\dot{K}}{K}$: 자본 증가율, $\frac{\dot{L}}{L}$: 노동 증가율)

- 성장회계모형에 필요한 노동(L), 자본(K), 총요소생산성(A) 데이터는 인도 정부 및 관련 기관, 선행연구에 제시된 관련 방법론을 활용하여 확보함.
- 노동(L) 데이터는 인도 국가인구위원회가 추정한 인구전망 자료 중 1996~2016년 주별 경제활동인구(15~60세)와 이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선형 추정한 데이터를 사용함.
- 자본(K) 데이터는 인도 통계청이 추정한 주별 1993~99년 총고정자본형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선형 추정치를 기준연도 접속법을 통해 2026년까지 추정하였으며, 기준연도 접속법에 사용된 감가상각률은 다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인 5%를 적용함.
- 총요소생산성(A)은 최근까지의 주별 생산성 격차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가정을 반영하여 실질 경제성장률에서 노동 및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률을 뺀 수치를 5년간 이동평균법을 활용하여 2026년까지 추정하여 사용함.

- 자본분배율(α)과 노동분배율($1-\alpha$)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각 0.3과 0.7를 적용함.

2) 주별 과거 성장 패턴

- 주별 과거 성장 패턴 분석기간은 1995/96년~2009/10년이며, 분석 대상은 주요 15개 주임.
- 2000년 분리된 우타르칸드, 차티스가르, 자르칸드주의 경우 분리되기 이전 주인 우타르프라데시, 마디아프라데시, 비하르에 각각 통합하여 분석함.

표 2. 장기성장을 추정 대상 주 및 비대상 주

추정대상 주		비하르, 케랄라, 구자라트, 펀자브, 웨스트벵갈, 마디아프라데시, 마하라슈트라, 타밀나두, 하리아나, 안드라프라데시, 카르나타카, 오리사, 라자스탄, 우따르프라데시, 아삼
비추정 대상 주	북동부 낙후주	나갈랜드, 마니푸르, 아루나찰프라데시, 시킴, 트리푸라, 미조람, 메갈라야
	북서부 낙후주	잠무카슈미르, 히마찰프라데시
	소형주	고아
	2000년 이후 분리주	우타르칸드, 자르칸드, 차티스가르 (이들은 각각 분리 전 주인 우따르프라데시, 비하르, 마디아프라데시에 각각 포함시켜 분석하였음)

- 분석 결과 구자라트, 하리아나, 마하라슈트라는 대체로 평균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주들로 분류됨.
- 구자라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줄곧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, 마하라슈트라는 2000년대 전반 한때 중성장 주로 떨어졌지만 이후 고성장 주의 위상을 회복하였음.
- 하리아나는 2000년대 전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, 그 전후에도 중성장 주 중에서 항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옴.
- 웨스트벵갈, 카르나타카, 마디아프라데시, 오리사, 비하르, 안드라프라데시,

라자스탄, 우타르프라데시, 타밀나두, 케랄라는 중성장 주로 분류됨.

- 웨스트벵갈, 카르나타까, 마디아프라데시는 1990년대 후반에는 모두 고성장주였지만 이후 중성장 또는 저성장 주로 전환되었음.
- 오리사와 비하르의 경우 1990년대 후반기만 해도 저성장 주였지만 이후 줄곧 중성장 주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.
- 안드라프라데시, 라자스탄, 우타르프라데시, 타밀나두, 케랄라 주는 기간별 변동이 적으면서 줄곧 중성장주를 유지하고 있음.

■ 아삼 주는 저성장 주로 분류됨.

- 아삼 주는 2000년대 전반 성장률이 높아져 중성장 주에 편입되었지만 이때에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등 1990년대 후반 이후 거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.

표 3. 기간별 주별 성장 수준 변화

	1995~99년	2000~04년	2005~09년	1995~2009년
구자라트	중(상)	고	고	고
마하라슈트라	고	중	고	고
하리아나	중(상)	고	중(상)	고
웨스트벵갈	고	중	중(하)	중
카르나타까	고	저	중	중
마디아프라데시	고	저	중	중
안드라프라데시	중	중(상)	중	중
라자스탄	중(하)	중	중(하)	중
우타르프라데시	중(하)	중	중	중
타밀나두	중	중	중	중
케랄라	중(하)	중(상)	중	중
편자브	중(하)	저	중	중
오리사	저	중(상)	중(상)	중
비하르	저	중	중	중
아삼	저	중(하)	저	저

자료: 필자 작성.

- 주별 성장률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로 분해해서 보면,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1990년대 후반(1995~99년) 28.0%에서 2000년대 후반(2005~09년)에 46.5%로 약 1.7배 가까이 증가함.
- 1990년대 전반기에 비해 2000년대 후반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높아진 것은 2000년대 후반 인도의 주별 성장률이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 증가보다는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음을 의미함.
- 반면 자본투입 기여도는 33.2%에서 33.6%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노동투입 기여도는 38.8%에서 19.9%로 크게 감소함.

표 4. 기간별 생산요소 기여도 변화

(단위: %)

	GDP 증가율	K(기여도)	L(기여도)	A(기여도)
1995~99년	5.5	33.2	38.8	28.0
2000~04년	5.4	49.7	36.6	13.7
2005~09년	8.5	33.6	19.9	46.5
전체 평균	6.5	37.4	28.7	34.0

주: 전체 평균은 분석대상인 15개 주의 증가율, 기여도를 단순 평균한 것임.

자료: 필자 작성.

- 케랄라, 구자라트, 마하라슈트라 주 등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1990년대 후반기 대비 크게 증가하여 15개 주 평균 총요소생산성 기여도(46.5%)를 크게 상회함.
- 이 주들의 2005~09년 GDP 증가율은 1995~99년 대비 평균 1.7배 증가하여 전체 주가 평균 1.5배 증가한 것보다 높게 나타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이 주들의 GDP 성장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.
- 안드라프라데시, 카르나타카, 라자스탄, 마디아프라데시의 경우 1995~99년 대비 2005~09년 중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감소하고 전체 평균인 46%에 미치지 못함.

- 이 주들의 2005~09년 GDP 성장률은 1995~99년 대비 평균 1.3배 증가하는데 그쳐 전체 평균인 1.5배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
■ 아삼과 비하르는 1995~99년, 2000~04년 중요소생산성 기여도가 마이너스였다가 2005~09년에는 각각 12%, 43%로 증가함.

- 중요소생산성 기여도가 높았던 2005~09년 아삼과 비하르의 GDP 증가율은 평균 2.5배 증가하여 전체 주 평균인 1.5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.

표 5. 중요소생산성 기여도 변화와 GDP 성장률 영향

(단위: %)

주	중요소생산성 기여도		GDP 성장률		(B)/(A)
	1995~99	2005~09	1995~99(A)	2005~09(B)	
케랄라*	40	70	5.1	8.7	1.7
구자라트*	10	60	6.0	10.3	1.7
편자브	38	57	5.1	7.8	1.5
마하라슈트라*	52	69	7.0	11.2	1.6
타밀나두*	42	64	5.5	9.8	1.8
오리사*	43	66	4.2	9.4	2.2
하리아나*	29	50	5.7	9.7	1.7
7개 주 평균	39	62	6.0	10	1.7
안드라프라데시*	48	32	5.5	8.7	1.6
카르나타까*	45	39	8.1	8.5	1.0
라자스탄	26	17	6.6	6.9	1.0
마디아프라데시	53	46	6.9	7.9	1.1
4개 주 평균	43	34	7	8	1.3
아삼	-63	12	1.9	5.6	2.2
비하르	-9.4	43	3.5	7.7	2.9
2개 주 평균	-36.2	27.5	2.7	6.7	2.5
전체(15개 주)	28	46	5.5	8.5	1.5

주: * 2005~09년 기간 연평균 8.5% 이상 성장한 주임. 기여도는 소수점 반올림함.

자료: 필자 작성.

3) 주별 장기 성장을 추정 및 성장 패턴

- 성장회계모형으로 2026년까지 인도 주별 장기 성장을 추정하고, 이를 바탕으로 고성장, 중성장, 저성장 주로 구분하여 성장패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- 고성장을 보이는 주는 구자라트, 마하라슈트라, 오리사, 케랄라, 타밀나두, 하리아나로 나타났으며, 편자브, 비하르, 마디아프라데시, 라자스탄, 카르나타까, 웨스트벵갈, 우타르프라데시는 중성장 주로, 안드라프라데시와 아삼은 저성장 주로 분류됨.
- 특히 고성장 주인 타밀나두, 오리사, 케랄라, 구자라트, 마하라슈트라, 하리아나의 2010~26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수준은 60~70%로 나타나, 전체 15개 주의 평균인 55.8%를 훨씬 상회하였음.

표 6. 미래 성장을 기준 주별 변화 전망

구분*	1995~2009년		2010~26년	
	성장률	해당 주	성장률	해당 주
고성장	7.5% 이상	구자라트, 마하라슈트라, 하리아나	8.5% 이상	구자라트, 마하라슈트라, 오리사, 케랄라, 타밀나두, 하리아나
중성장	5.3~7.4%	케랄라, 안드라프라데시, 카르나타까, 편자브, 마디아프라데시, 웨스트벵갈, 타밀나두, 비하르, 오리사, 우타르프라데시, 라자스탄	5.6~8.4%	편자브, 비하르, 마디아프라데시, 라자스탄, 카르나타카, 웨스트벵갈, 우타르프라데시
저성장	5.2% 이하	아삼	5.5% 이하	안드라프라데시, 아삼

주: * 기간 평균 성장률의 상하 20% 범위를 중심으로 그 이상은 고성장, 이하는 저성장 주로 구분.
자료: 필자작성.

- 2026년 주별 소득수준 기준으로 고소득, 중소득, 저소득으로 분류, 비교해 본 결과는 [표 7]과 같음.
- 고소득 주는 마하라슈트라, 구자라트, 하리아나, 케랄라, 타밀나두, 중소득 주는 편자브, 오리사, 카르나타카, 저소득 주는 안드라프라데시, 웨스트벵갈, 비하르, 우타르프라데시, 마디아프라데시, 라자스탄, 아삼으로 나타남.

표 7. 미래 소득수준 기준 주별 변화 전망

구분	2009/10년		2026/27년	
	1인당 GDP	해당주	1인당 GDP	해당주
고소득	50,000루피 이상 (약 1,146달러)	하리아나, 마하라슈트라, 구자라트, 펀자브, 케랄라, 타밀나두	150,000루피 이상 (\$3,486)	마하라슈트라, 구자라트, 케랄라, 타밀나두, 하리아나
중소득	33,001 (\$757)~ 49,999루피 (\$1,145)	안드라프라데시, 카르나타카, 웨스트벵갈	100,001 (\$2,294)~ 149,999루피 (\$3,485)	펀자브, 오리사, 카르나타카
저소득	33,000루피 이하 (약 756달러)	비하르, 우타르프라데시, 오리사, 라자스탄, 아삼, 마디아프라데시	100,000루피 이하 (\$2,293)	안드라프라데시, 웨스트벵갈, 마디아프라데시, 라자스탄, 비하르, 우타르프라데시, 아삼

주: 2010년은 달러당 46.7루피를 적용하였으며 2026년은 글로벌인사이드의 미래 환율 전망치인 달러당 43루피를 적용하였음.
자료: 필자 작성.

- 미래 성장률과 소득수준을 조합해 보면, 대체로 성장률이 높은 주가 소득 또한 높게 나타남.

그림 1. 미래 성장률 및 소득 기준 주별 성장패턴(2010~26년)

(단위: 루피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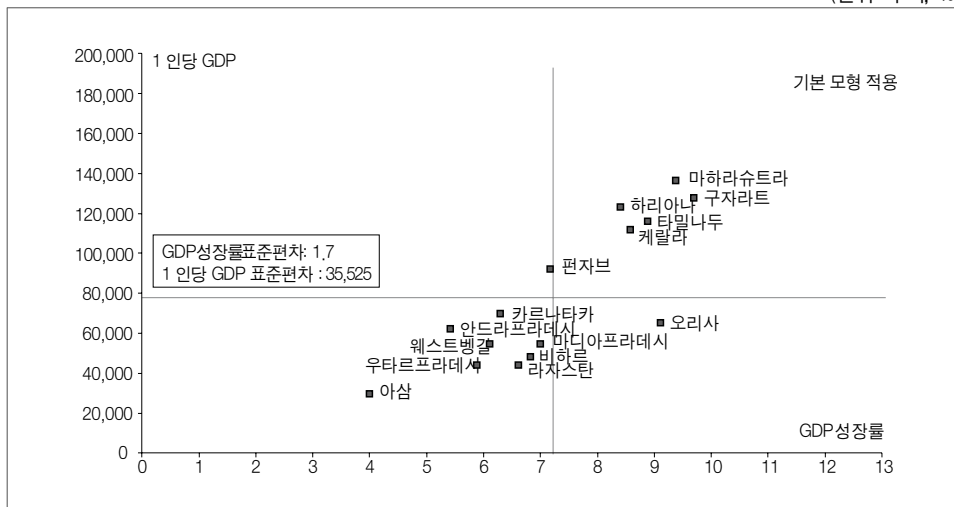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계속

구분	해당주
고성장-고소득	구자라트, 마하라슈트라, 타밀나두, 케랄라, 하리아나, 펀자브
고성장-저소득	오리사
저성장-고소득	-
저성장-저소득	비하르, 마디아프라데시, 카르나타카, 라자스탄, 웨스트벵갈, 안드라프라데시, 아삼, 우타르프라데시

주: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의 평균을 중심으로 구분함.
자료: 필자 작성.

- 고성장-고소득 주는 마하라슈트라, 구자라트, 하리아나, 타밀나두, 케랄라로 나타났으며, 고성장-저소득 주는 오리사, 저성장-저소득 주는 비하르, 마디아프라데시, 카르나타카, 라자스탄, 웨스트벵갈, 안드라프라데시, 아삼, 우타르프라데시로 나타남.

4) 장기 성장패턴 변화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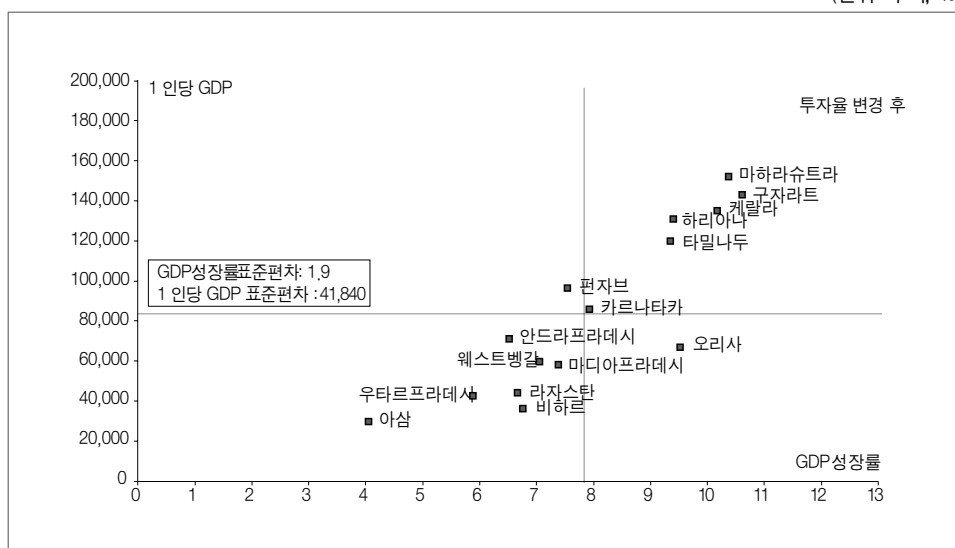
- 투자율에 변화를 준 결과 주별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, 저성장-저소득 주로 분류되었던 카르나타카가 고성장-고소득 주로 편입됨.
- 투자율 변화는 세계은행이 2009년 발표한 인도 16개 주의 투자환경지수를 활용하여, 투자환경이 좋은 주일수록 기존 투자율에 배수를 적용하는(2배, 1.5배, 1배) 방법을 사용함.
- 성장이 낙후된 주일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신 고전학파의 성장이론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, 투자율에 변화를 주었을 때와 달리 각 주의 성장률 및 소득수준, 성장패턴은 크게 변화함.
- 당초 고성장-고소득 주로 분류되었던 마하라슈트라, 타밀나두, 케랄라, 구자

라트 주가 저성장-고소득 주로 분류됨.

- 저성장-저소득 주였던 카르나타카, 마디아프라데시, 안드라프라데시, 우타르프라데시, 비하르, 라자스탄, 아삼 등은 고성장-저소득 주로 이동함.
- 카르나타카와 안드라프라데시는 저성장-저소득 주에서 고성장-고소득 주로 편입함.

그림 2. 투자환경을 고려한 미래 주별 성장패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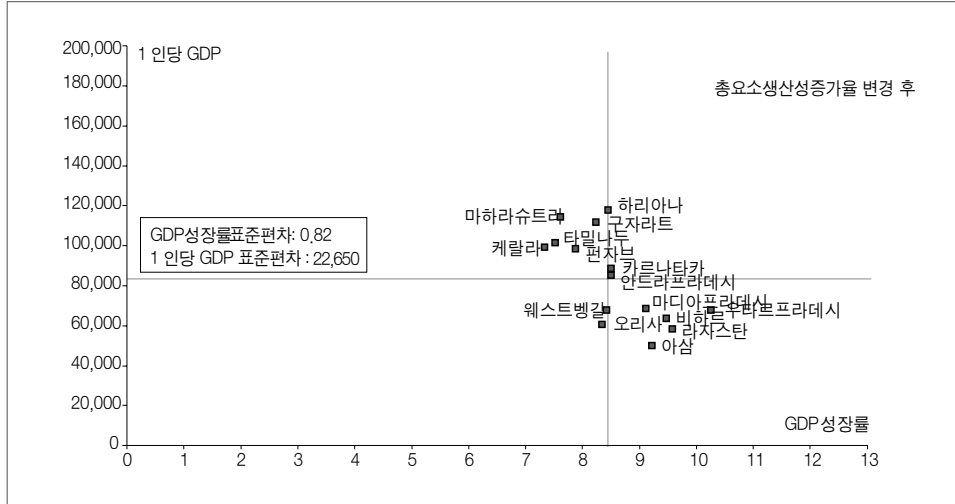
(단위: 루피, %)



구분	해당주
고성장-고소득	구자라트, 마하라슈트라, 타밀나두, 케랄라, 하리아나, 카르나타카
고성장-저소득	오리사
저성장-고소득	편자브
저성장-저소득	비하르, 마디아프라데시, 라자스탄, 웨스트벵갈, 안드라프라데시, 아삼, 우타르프라데시

자료: 필자 작성.

그림 3. 총요소생산성 변경 이후 주별 미래 성장패턴



구분	해당주
고성장/고소득	하리아나, 카르나타카, 안드라프라데시
고성장/저소득	마디아프라데시, 우타르프라데시, 비하르, 라자스탄, 아삼
저성장/고소득	마하라슈트라, 구자라트, 타밀나두, 케랄라, 펀자브
저성장/저소득	웨스트벵갈, 오리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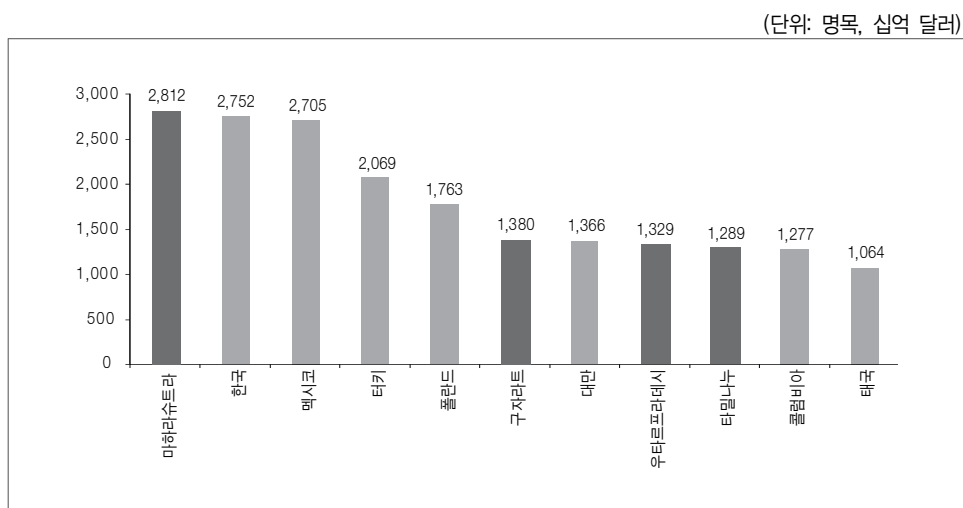
자료: 필자 작성.

4. 인도 주별 위상 변화와 정책 시사점

1) 인도 주별 위상 변화

- 인도 15개 주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2026년 명목 GDP 규모를 추정하여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마하라슈트라 및 구자라트 등의 경제규모는 1조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특히 마하라슈트라의 경제규모는 2026년 약 2조 8,000억 달러로 폴란드(약 1조 7,600억 달러), 터키(약 2조 달러), 멕시코(약 2조 7,000억 달러)는 물론

그림 4. 인도 주 및 기타 국가와 GDP 규모 비교(2026년)



자료: 필자 추정치 및 Global Insight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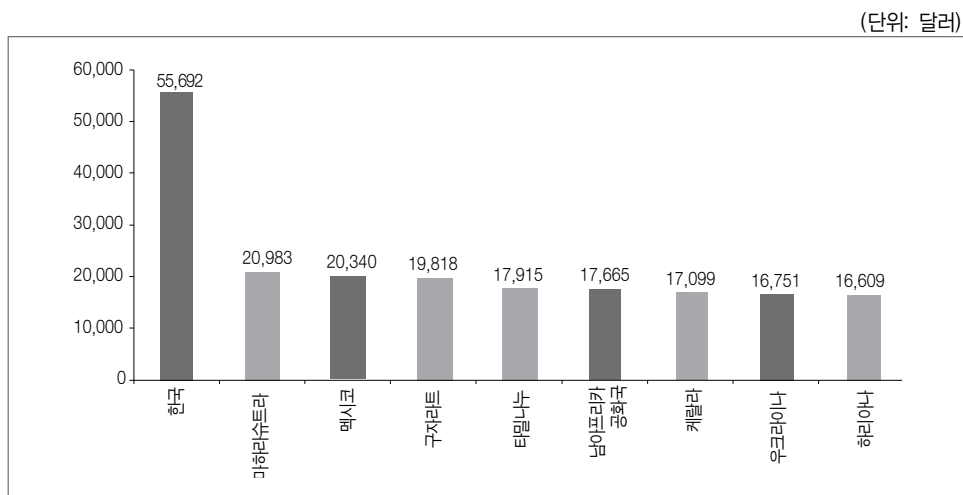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(약 2조 7,500억 달러)를 앞지를 전망이다.

- 구자라트, 우타르프라데시, 타밀나두의 명목 GDP 규모도 1조~1조 5,000억 달러에 달해 태국(약 1조 달러)을 압도하고, 대만(약 1조 3,000억 달러), 콜롬비아(약 1조 2,000억 달러)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.

■ 추정된 명목 GDP 규모를 활용하여 2026년 15개 주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해본 결과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는 2만 달러 이상, 타밀나두, 케랄라, 하리아나, 편자브는 1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.

- 2026년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는 멕시코(20,340달러)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, 타밀나두, 케랄라, 하리아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(17,665달러), 우크라이나(16,751달러)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.
- 편자브, 오리사는 이란(15,827달러), 태국(14,569달러), 페루(12,062달러), 이라크(11,632달러), 인도네시아(11,235달러)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.

그림 5. 인도 주 및 기타 국가와 1인당 GDP 비교(2026년)



자료: Global Insight.

2) 정책 시사점

■ 인도 주별 성장패턴을 고려한 진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- 먼저 고성장-고소득 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진출전략이 마련되어야 함.
 - 인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위상을 갖게 될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에 대한 집중적인 경험 및 진출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.
 - 또한 생산거점보다 내수공략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, 이 주들의 특성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.
- 고성장-고소득 주의 경계에 있는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, 이 주들을 제2의 우선 공략 대상 주로 삼고 선제적인 진출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.
 - 고성장-고소득 주의 경계에 있는 주로는 펀자브, 오리사, 카르나타카, 마디아프라데시 등이 있으며, 특히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투자가 추진 중인 오리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.
- 비하르, 구자라트 등 저성장-저소득 주들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

있어, 주별 성장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함.

- 이 주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접근전략을 펼치면서, 당장은 주별 틈새를 우선 공략할 필요가 있음.

■ 인도의 주별 성장 및 소득증가 속도가 선진국은 물론 다른 신흥 개도국보다 매우 빠른 만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.

- 특히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주별로 막대한 인프라 개발 수요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.
- 주별 소득 급등과 함께 소비구조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 주들의 경제성장 동향과 함께 급변할 소비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.
- 특히 도시에 성장이 집중되기 때문에 주별 대도시를 적극 활용하는 진출전략 수립이 우선 검토되어야 함.

그림 6.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

